

광주시교육청, '학생 건강 체력 회복 프로그램' 운영

통합학교 스포츠클럽·스포츠 캠프·체육대회 지원



1, 3 광주 선운중학교 학생들이 교내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 광주시교육청사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체력이 저하된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고자 '건강 체력회복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건강 체력회복 프로젝트는 통합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운동부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캠프, 대면 교내체육대회 지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기존 우수학교 스포츠클럽을 4개 분야 통합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해 총 275개 클럽, 1만3천여 명 학생이 참여한다. 등교 전, 점심시간, 방과 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진행한다. 통합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클럽은 광주시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대표로 선발된 팀은 전국대회에 시 대표로 참여할 기회도 제공한다.

스포츠 캠프는 훈련 없는 날을 활용해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일반 학생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다. 20개 학교 운동부가 참여 신청을 해 우수 선수 발굴과 건-체력을 향상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된 교내 체육대회도 대면 경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체육 활성화와 저하된 학생 건강 체력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